

## 退溪의 家學과 사상형성\*\*

權 五 鳳\*

### I

退溪家에는 학문을 사업(家傳之事業)으로 이어오고 있었다. 이를 ‘家學’<sup>1)</sup>이라 하거니와 퇴계가의 가학에는 a) 학문하는 일, b) 선세의 유업 전승, c) 자손을 교육하는 일, d) 과거하고 출사하는 일, e) 문도를 모아 교육하는 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업들은 퇴계의 조부대로부터

\* 전 포항공대 교양학과 교수.

\*\* 퇴계학연구소 『퇴계학보』 제68호, (1990) 게재논문

#### 1) 家學

○ 한 집안에 代代로 傳하여 오는 學問. [한글 큰사전·한글학회편, 국어 대사전·이희승편]

○ 家傳之學業也. [辭海·臺灣中華書局刊, 辭源·商務印書館刊]

○ ① その家に代代傳はっている學問.

② 家傳の學業 [大漢和辭典·諸橋轍次著]

○ その家の専門として代代傳わる學問·箕裘學 [角川漢和辭典]

學業; 謂學問之事也 [辭典]

家教; 謂在家說教也 [辭海]

庭訓; 謂父訓也 [辭海]

\* 퇴계는 손자 安道에게 시로써 勸學教誨하면서 그 序에 『寄示安道庶幾知家教所自來 以自勉云爾』라 하여 ‘家教’라는 말을 썼다. 또 母夫人 朴氏의 묘갈명에서는 ‘平日慣聞 先君庭訓’이라 하여 ‘庭訓’을 父訓으로 못박아 쓰고 있다. 퇴계가 쓴 家教와 庭訓은 엄격하게 가학과 구별지위짐을 알 수 있다. 퇴계가 ‘先君庭訓’이라 한 말은 辭書에서 解義한 ‘父親의 가르침’을 뜻하고 ‘家教’는 조부대부터 龍壽寺를 家塾으로 부친 형제(埴堦)와 從班이 榻居 同學한 가정의 設 敎學을 말한다.

家塾을 두고 一形態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이것이 子與孫에게 이어진 가업이다.

일반적으로 퇴계의 生長歷과 교육의 배경을 논할 때는 퇴계의 연보와 志銘 등 기록을 분석고찰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리고, 퇴계 본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그의 학문의 배경과 철학사상 내지는 행적을 조명하였다. 그러므로 퇴계 가문에는 선대에 어떠한 가학과 퇴계 같은 인물이 나오기까지의 교육 문화적 요인이나 광범위한 인간환경에 관해서는 아직 깊이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퇴계 본인이 찬술해 놓은 祖與父 兩世의 行錄을 검토하고, 퇴계 자신이 承襲 實行한 사실들의 具案的인 동기를 파악한 후 퇴계가 家人(子姪孫)에게 실시한 家敎를 검토하면, 퇴계가의 가학과 사상형성은 쉽게 추출할 수 있다. 그 여럿 중에서 몇 가지를 요약하여 이에 보고하고자 한다.

## II

퇴계가에는 퇴계의 조부인 李繼陽(字 達甫, 號 老松亭, 1424~1488)으로부터 의도적인 가정 설교가 있었고, 교육 의지를 담은 言志詩로써 권학하는 것이 그 첫째 형태이다.

老松亭은 주거가 있는 溫溪(慶尙北道 安東郡 陶山面 溫惠洞)에서 4.5km쯤 떨어진 龍頭山 龍壽寺를 家敎處로 정하여 자제 형제를 교육시켰다. 이 용수사는 이후 퇴계가의 家庭學塾이 되었고, 퇴계의 부친 李埴(字 器之, 1463~1502)과 숙부 李堦(字 明仲, 號 松齋, 1468~1517)는 부친의 庭訓과 교육 목적을 順行하여, 형은 小科에 합격하였고, 아우는 소과를 거쳐 大科에 합격하여 監司와 參判의 관직에 올랐으며, 퇴계가를 開門하는 데 기초를 닦았다.

老松亭의 家訓이요 교육의 言志詩를 퇴계는 조부의 ‘事蹟’ 에다 다음

과 같이 써 두었다.

先君께서 젊으실 적 숙부와 더불어 龍頭山의 龍壽寺에서 공부하실 때  
조부께서 시를 지어 보냈다. <詩序>

세월이 빨라서 어느덧 한 해가 또 저무는데  
절문 앞에는 백설이 가득 덮였으리라  
추운 절간에서 힘 다해 공부하는지 밤낮 너희들 생각  
큰 한 꿈 이루어 주기를 글방 곁에 맴돈다.<sup>2)</sup>

그리고 ‘事蹟’에는 그의 조부가 자손교육을 가업으로 삼았던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조부는 성품이 恬靜 閑遠하여 세상에 나아갈 일에는 힘쓰지 아니하고  
농사나 지으며, 때로는 낚시나 하는 데 樂을 붙이고 살면서 자손교육을  
업으로 하다가 세상을 마칠 뜻만 있었다.<sup>3)</sup>

퇴계가 기록해 둔 이 ‘사적’ 글은 곧 노송정 이계양이 家敎한 이력과  
교육의지 및 가학의 창설을 명확히 드러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다음 대에 와서는 퇴계 부친이 퇴계가 나던 이듬 해에 별세하자 숙부  
인 松齋가 子姪의 보호는 물론 선대의 胎謀를 계승하여 역시 용수사를  
家塾으로 삼고 說敎하여 전보다 훨씬 현달한 인물을 길렀고 가문을 창  
달시켰다.

松齋의 대에 이르러는 퇴계 형제인 潛, 河, 漪, 瀉, 澄, 滉(退溪)과  
從弟 壽峇과 함께 從妹夫 曹孝淵, 吳彦毅까지도 龍壽寺와 淸涼山에 同

2) 『先祖考兵曹參判諱繼陽事蹟』

先君與叔父 少時讀書於龍頭山龍壽寺 公以一絕寄之曰

節序駸駸歲暮天 雪山深擁寺門前

念渠苦業寒窓下 淸夢時時到榻邊

[퇴계선생전서 속집 · 권 8 · 엽28, 도산전서 · 책4, pp.608~606]

3) 上揭 『事蹟』

公性恬靜閑遠 不務進取 以耕釣爲樂 敎子孫爲業 有終焉之志

榻修學하였다. 그래서 四兄 李瀼(字 景明, 號 溫溪, 1496~1550)는 대·소과에 합격하여 大司諫, 大司憲, 監司의 관직에 올랐고, 퇴계가 배출되었다.

송재는 子姪을 용수사에 보내어 同塾시키면서 부친의 가학을 이어 받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청량산에 子姪과 壻君을 보내어 수학케 했다.

송재가 子姪을 용수사에 入寺시켜서 권학한 시는 다음과 같다.

푸른산 둘러 있고 눈이 다락을 때리는 곳  
 절간 깊은 곳에서 기름을 태우며  
 삼다(三多, 看多, 做多, 商量多)를 三冬의 富로 삼아  
 한 이치를 좇아 일관하여 구하라  
 누가 경서 공부를 출세하는 도구라 말하는가  
 쉬지 않고 닦는 것이 입신양명하는 길인데  
 옛부터 착한 일은 일찍부터 힘쓰라 했지  
 과거 불 날 앞에 왔으니 세월도 빠르도다.<sup>4)</sup>

학문의 방법론과 입신양명을 도모한 데 주목을 끈다. 선대의 遺志인 학문, 과거, 宦業까지도 勤切하게 부탁하고 있다.

송재가 청량산으로 子姪을 보내면서 읊은 시에는 자신이 이룬 가업과 학문승계를 확인코자 하는 적극적인 教誨가 나타나 있다.

독서하는 것은 산에 오르는 것과 같아  
 너희 보내며 시 열 마리를 읊는 것은  
 이번 가서 공부한 걸 모름지기 적어와서  
 광주리 속 나의 것과 견주고자 함이로다.<sup>5)</sup>

4) 『寄瀼輩讀書龍山』

碧嶺爲屏雪打樓 佛幢深處可焚油  
 三多是使三冬富 一理當從一貫求  
 經術莫言青紫具 藏修須作立揚謀  
 古來業白俱要早 槐市前頭歲月遒  
 [松齋先生文集·卷2, 葉12]

이 시는 후일 퇴계가 추모하고 지어서 子姪孫의 家敎로 삼았고, 가학을 실습시켰으며,<sup>6)</sup> 溫溪는 숙부의 시에 跋文을 붙여 懸판으로 새겨 가학의 지표로 했다.

다음에 퇴계가 계승한 家敎의 일단을 살펴 보기로 한다.

퇴계는 조부와 숙부의 가학을 이어받아 용수사에서 공부하고 있는 (1566년 丙寅 11월) 손자 安道에게 조부와 숙부의 韻으로 시를 읊어 권학하면서 詩序文에다 가학이 이로부터 유래하였음을 깨닫고 공부하라고 가르쳤다.

해 저문 저 山房 너희들을 생각하며  
학업에 勤苦하란 선조 말씀 추모한다  
두 시를 거듭 외면 무궁한 끼친 뜻에  
밤 깊은 베갯머리에도 꿈은 질로 깨이리

<조부의 시를 차운함>

젊을 때 용수사를 우리집 글집 삼아  
몇 차례나 관솔불로 등잔을 대신턴고  
가훈의 그날 경계 말씀을 잊지를 말고  
이치의 근원을 지금 더욱 탐구하여  
늙은 나의 이 마음 너희가 이어받아  
올바로 사귀어 원대한 피 지니어라  
눈 덮인 산문에 인기척이 사라질 제  
한 치의 광음이라고 함께 아껴 쓰려무나

<숙부의 시를 차운함><sup>7)</sup>

5) 『送曹吳兩郎與澐輩讀書清涼山』  
讀書人道若遊山 深淺優遊信往還  
況是清涼幽絕處 我曾螢雪十年間  
遊蹤猶入眼森森 送爾空成十絕吟  
此去須修遊錄返 篋中重欲較前尋  
〔上揭書〕

6) 『十一月入清涼山』  
이 시는 40구의 長詩이다. 40년전에 숙부를 따라 清涼山에 들어가 수학한 일을 추억해 읊었고, 行行力已竭 上上心愈猛한 자신의 깨달음과 면학했음을 전하면서 숙부와 같은 처지로 돌아가 가학을 실습시켰다.  
〔退溪先生文集·內集 卷2, 葉29〕

이렇게 퇴계가의 용수사 가문 설교는 학문을 일으키려 한 가학의 시작이었다. 가문 設學의 기대가 이로부터 온 것이라고 퇴계는 분명히 밝혔고 선대가 子姪을 훈계하는 시로써 교육하였다.

따라서 노송정 시는 期望이 원대한 가학의 연원이 되었으며, 송재는 이를 계승하여 다음 대로 잇는 역할을 하였고 그 부친의 소원을 성취시킨 것이 되었다. 또 퇴계는 父祖兩代의 丁寧懇到한 훈계를 拳拳히 이어받아 遺澤과 遠謀를 더욱 확충발전시키고 가학의 학풍을 반석같이 확립하였다.

### III

퇴계가에는 퇴계의 증조부 李禎으로부터 植松 慕節한 행적이 있는데, 우선 퇴계가 30대부터 30년간 소나무를 심고 시에다 읊어 놓은 사적부터 열거해 본다.

퇴계가 34세(1534, 甲午)때에는 靑紅에 시샘하지 아니하고 절조의

#### 7) 『今澗寄示安道詩二首』

詩序 ; 孫兒安道 近往龍壽寺讀書 因追憶先世爲子姪訓戒之詩 所以誨導期望者 丁寧懇到 反復誦繹 不勝感涕拳拳之望 不可不使後生輩聞之 謹用元韻 寄示安道 庶幾家教自來 以自勉云爾

念爾山房臘雪天 業成勤苦庶追前  
二詩三復無窮意 一枕更闌夢覺邊  
少年龍社擬書樓 幾把松明代蕪油  
家訓未忘當日戒 理源仍昧至今求  
老情斬汝承遺澤 忠告資朋尙遠謀  
門擁雪山人寂寂 好將同惜寸陰遒  
嘉靖四十六年歲在丙寅十一月日 時安道同棲  
有益友數人 故有忠告資朋之語

[退溪先生文集·內集, 卷4, 葉22~23]

<이 두 詩 앞에 附序한 元韻二詩는 重複되므로 쓰지 않음>

본성을 지켜가며 화사한桃李의 芳容媚態를 아랑곳하지 않고, 幽穴에 潛育하여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겨울의 서리와 눈을 견뎌내면서 인간에게 각고하는 가르침을 주는 소나무를 ‘詠松’이란 제목으로 읊었다.<sup>8)</sup>

46세(1546, 丙午)에는 東巖에 養眞庵을 開堂하고 소나무를 심어서 시를 읊었으며,<sup>9)</sup> 풍기군수로 갔었던 49세(1549, 己酉) 때에는 紹修書院의 냇가에 翠寒臺라 하는 대를 쌓고, 솔과 대를 심은 뒤에 歲寒松柏의 고절을 읊었다.<sup>10)</sup> 또, 順興 東軒에는 손수 솔과 대를 심고 시를 읊었는데 후세 사람들은 이것은 ‘先生竹, 先生松’이라 하였다.<sup>11)</sup>

또 50세(1550, 庚戌) 때에는 寒棲庵을 지어 溪上에 定居하면서 庭園을 만들고 다섯 가지 高節 초목을 심었다. 주위에 소나무가 많이 있었음에도 솔을 옮겨 심고서 시 ‘種松’을 이렇게 읊었다.

8) 『詠松』

石上千年不老松 蒼鱗蹙蹙執騰龍  
生當絕壑臨無底 氣拂層霄壓峻峯  
不願青紅狀本性 肯隨桃李媚芳容  
深根養得龜蛇骨 霜雪終教貫大冬  
[退溪先生文集·續集, 卷1, 葉3]

9) 『東岩言志』其二

別蔚搜奇得古岩 幽居從此更非凡  
休論費力開堂宇 且待成陰植檜杉  
<後 4句 略함>

[退溪先生文集·續集, 卷1, 葉29]

10) 『栢與竹名曰翠寒贈同遊諸彦』

斷石臨溪勢欲騫 搜奇初得共欣然  
試除荒草開蒼壁 規作平臺挹翠烟  
正好冠童春暮月 翻思松柏歲寒天  
自慙老守摧頽甚 登陟猶能廁衆賢  
[退溪先生文集·別集, 卷1, 葉35]

11) 『郡齋移竹有詩(郡齋移竹：48句)』

[退溪先生文集·內集, 葉44]  
『郡人至今稱爲先生竹 又有當日手植松』  
[退溪先生年譜補遺：李野淳撰]

나뭇꾼은 쭈(다북쭈)과 같이 천하게 여기지만  
 나는 계수나무처럼 아끼는도다  
 푸른 하늘 솟구쳐 자라기를 바라며  
 바람 서리 어떠한건 무릅쓰고 견뎌다오.<sup>12)</sup>

바로 이듬 해(1551, 辛亥)에는 溪上書堂을 짓고 朱夫子의 도를 따르  
 겠다는 千古負擔의 의지를 밝히면서 시 ‘有嘆’을 읊었고,<sup>13)</sup> 六友園을 만  
 들어 술을 비롯한 五友를 심고서는 다음 시를 읊었다.

신선놀이 하노라니 베개 꿈 이루고  
 주역을 읽으려고 창을 열어 두었노라  
 천 섬이나 많은 녹을 맨손으로 취할건가  
 여섯 벗 에 있으니 내 마음 후련하오<sup>14)</sup> <이가원 역>

12) 『移構草屋於退溪之西名曰寒栖菴』其二 種松  
 樵夫賤如蓬 山翁惜如桂  
 得待昂青宵 風霜幾凌厲

13) 『有嘆』  
 今世何人第一流 脊樑硬鐵擔千秋  
 須知少味還多味 若道無愁轉有愁  
 謝透利關緣事洛 胡明物漬爲從涪  
 自憐半百無歸仰 依舊人間寂寂儔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제일가는 도학자 나타나서,  
 斯文 바칠 쉰 기둥되어 千古의 聖教 맡아줄꼬,  
 모름지기 맛 없는 게 도리어 맛있는 줄 알았는데,  
 근심이 없음을 말하러 하여도 오히려 근심은 더하기만 하네.  
 謝上蔡는 利의 門을 뚫고 나와 程子에게 배워 道를 이었고,  
 胡籍溪는 物慾의 어둠에서 벗어나 譙涪陵에 從師하고 道를 朱子에게 이었네.  
 애달다 내 나이 쉰인데도 歸仰할 곳 없으니,  
 저 옛날 은거하여서 큰 일을 이룩한 그 어른에 의탁하리라.  
 [退溪先生文集·內集, 卷2, 葉5]  
 拙著 『退溪의 燕居와 思想形成』(浦項工大, 1989, pp.72~75).

14) 『溪堂(溪上書堂)偶興十絕』其六  
 已著游仙枕 還開讀易窓

8년후(1559, 己未)에 퇴계는 焚黃祭를 지내려고 귀향하여 溫惠 못미처 紅亭子の 암석 위에 대를 만들어 소나무를 심고 松石臺라 명명하였으며 경향을 왕래할 때에 죽친과의 送迎處로 삼았다.<sup>15)</sup>

또, 2년 뒤(1561, 辛酉)에는 陶山書堂을 落成하여 始居하였는데 鄭惟一(字·子中, 號·文峯, 1533~1576)의 ‘閑居二十詠’에 화답하면서 節友壇에 심은 소나무를 ‘種松’<sup>16)</sup>이라 題하고 ‘宿盟’을 表白하였다.

이렇듯 퇴계가 숲을 심고 시를 읊은 그 사상은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 필자는 퇴계의 가학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그 선대에 연원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퇴계가 撰한 숙부 松齋公의 墓碣識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온계 위에 先人이 손수 심은 소나무 숲이 있는데 府君은 그 곁에 집을 짓고 사시니 고향을 생각하고 어른들은 추모하는 생각을 감추었다. 인하여 스스로 號를 지어 松齋라 하였다. (溫溪之有 先人手植松林 府君就其傍築室居之 以寓桑梓之感 因自號謂松齋)<sup>17)</sup>

手鍾非乎搏 六友是心降

松·竹·梅·菊·蓮·己爲友

[退溪先生文集, 內集, 卷2, 葉7~8]

『退溪가 幽居한 溪上書堂, 六友園과 方堂.』

[拙著·上揭書 pp.72~75]

- 15) 己未二月 呈焚黃受由 出東湖買舟東歸 三月過風至龜潭 主人李之蕃丹倅見逐……是行發榮川至松石臺 先生往來京洛時 因岩築之而名 又植松蔭臺焉 溫溪諸親來迎 [退溪先生言行通錄·卷3, 葉31, <行實·賞適之樂>]

- 16) 『種松』

嶺上蒼蒼盡對楹 移根何事下崢嶸

山苗枉使校長短 院竹何如作弟兄

風雨震凌根不動 雪霜凍裂氣餘清

誰知喜聽茅山隱 壟上和雲有宿盟

[退溪先生文集·內集 卷3, 葉25]

- 17) 松齋先生年譜(舊譜)

癸酉春拜金海府使不赴 溫溪有先人手植松數十株成林 聳秀可愛 公就其傍築室 開齋 日繙閱經史 教訓子姪…… <猶子 滉 撰>

퇴계의 부친이 솔을 심어 松林을 조성하였고 숙부는 고향을 생각하면서 선대를 추모하는 뜻으로 그 곁에 집을 짓고 살면서 松齋라 號한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다. 退溪家의 父親代에 이미 愛松 慕節하고 思鄉追先하는 家道가 정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친이 아니고 조부의 手植이라 하더라도 그 연원은 분명하다.

老松亭代로 거슬러 올라가면 퇴계의 成長歷과 함께 植松慕節의 根抵는 더 깊음을 이해하게 된다. 퇴계의 조부는 그 부친으로부터 만년송한 그루를 받아 퇴계가 태어난 고택 즉 오늘의 노송정 종택에 심었다. 이 노송나무는 1850년경(宗孫 李燦和 在世時)에 枯死하였으나, 후손이 정성을 쏟아 보호하여 長松翠陰을 이루었고, 14대를 이어 追慕種松하는 전통을 가르쳤다.<sup>18)</sup>

퇴계 조부는 노송정이라 號하였거니와(후손이 宗宅 堂號를 老松亭으로 奉薦하고 인하여 李繼陽의 號로 삼았다는 설도 있음) 후손들은 송재와 퇴계의 뜻을 받들고 世世綿綿 祖業을 崇奉하며 歲寒松柏之後彫의 절개를 가르치는 가학으로 정착한 것이다.

그런데 소나무를 사랑하는 근거는 또 한 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야 찾을 수 있다. 퇴계 증조부 李禎은 善山府使를 역임하였는데 轉任前에는 寧邊判官으로 근무하였다. 재임중 藥山城을 開廣할 때 부사 曹備衡을 도와 축성을 감독하고 공을 쌓았다. 그 공적으로 선산부사로 전근하였는데 떠날 때 藥山松 三株를 가지고 와서 本宅과 사위 및 季子에게 각각 나눠 심게 하였다. 한 그루는 周村 본택에 심었고(현재 경류정에 보존되고 있으며 100여인이 나무 아래 앉을 수 있는 기품있는 똑향나무, 일명 萬年松), 한 그루는 선산부 재임중에 盆栽하여 玩賞하다가 離任時

(攷 ; ‘先人’을 松齋의 父親 李繼陽으로 볼 수도 있으나 年譜를 退溪가 撰하였기 때문에 退溪의 先人 李植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맞겠다. 松齋의 부친이었다면 ‘其先人’ 이든가 ‘先王考’ 라 했을 것이다.)

18) 眞城李氏 第6世 李繼陽으로부터 19世 李燦和(1850年頃)까지 老松은 살았으나 습기와 벌레 때문에 枯死한 것 같다. 現 宗孫 李昌建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조부 李範教가 나무가 서 있었던 곳을 파보았더니 썩은 뿌리가 있는데 습기가 심하였고 벌레가 많이 있었다 한다.

에 堦君 朴謹孫에게 주어 땅에 심게 하였으며(임진왜란 <1592~1598>을 겪으면서 枯死하고 不傳), 한 그루를 季子인 이계양에게 주어서 溫惠에 開基할 때 뜰에 심도록 하였다.<sup>19)</sup>

이 사실은 퇴계가의 애송 모질이 퇴계의 증조부인 李禎으로부터 發源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퇴계는 나면서부터 증조부의 만년송을 보면서 자랐었고, 祖與父의 植松 사상을 성장과 더불어 가꾸어 왔다. 후일 증조부의 사적에다 적었고 시를 읊어 후손이 조상의 뜻을 받들어 문호를 保持하고 積善과 人厚를 바르게 깨닫도록 깨우쳤다.<sup>20)</sup> 또 自手로 식송을 하면서 맹세를 하고 조상의 의지와 행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가학을 승화시켜 전승하였다.

퇴계의 이 가학은 대대승승해서 11대손 李晩寅(字 君宅, 號 龍山,

19) ① 『善山府使 諱禎 少慷慨多大志 以善射御 早顯 世宗朝 建州衛酋李滿住屢驚邊守 朝廷有四顧 選寧邊府判官 時適開廣藥山城 設巨鎮 能贊佐府使曹備衛 董治得宜 遂有成績』

[二樂亭文集·墓碣銘<申用概撰>]

② 『公在善山 嫁一女 海平人朴謹孫 臨去以衛中所養萬年松一盆 與之 謹孫乃爲之地植 而其子孫相傳謹護 盤屈奇岩 至今猶存』

[退溪撰·曾祖考善山公事蹟]

③ 『吾宗慶流畔 有一株松 封幹虬居盤結 儼然成華 蓋高數尋 弱下可容百許人 蓋松之氣品也 吾心四世祖考善山公所植 時堂仙李盤根之祖 我世宗大王 設寧邊鎮 築藥山城 以備北虜 松實爲判官 董治底績 其歸 愛藥山松移三種 以來一卽此松 一爲公季子判書公(諱·繼陽) 溫惠開基時底實 今與此松並茂 其一歸外裔善山朴氏家 經龍蛇之亂而不傳』

[李晩寅撰·慶流亭 老松記]

20) 『題慶流亭三首』

善積由來福慶滋 幾傳仁厚衍宗支  
勸君更勉持門戶 花樹韋家歲歲追

山下高亭執入冥 合宗筵席盡歡情  
更憐明月中秋夜 虛檻方池分外清

美酒高亭月正臨 何須一斗百篇吟  
小塘灑落如寒鏡 眞覺幽人善喻心  
[退溪先生文集·續集 卷2, 葉18]

1834~1897)은 靑孫 李兢淵에게 老松記를 지어주면서 “善山公이 노송나무를 심은 때가 우리 李氏가 여기에 뿌리 내리던 때”이므로 선조의 사상과 유업을 받들고 지켜 더럽히지 말자고 다음과 같이 서로 권면하였다.

아아! 공은 젊으실 적부터 큰 뜻을 가졌으므로 음사 벼슬에서만 항상 맴돌고 있어 그 포부를 다 펴지 못하였으나 삼대 께에 大賢이 나서 우리나라 천년의 행운이 되었으니, 공은 우리 이씨의 근본이었다. (中略) 술이란 차가운 계절의 지조가 있는 것이다. 지금 바야흐로 해가 차가워졌는지라 군과 나는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의리를 잃지 말고 늦은 후의 절개를 지키기를 더욱 힘써 조상의 본분을 더럽히지 말아야 조금은 이 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서로 더불어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sup>21)</sup>

21) 『於乎 公少有大 而低個道未及展布 三傳而篤生大賢 以幸我海東千載 公吾李氏根柢也(中略) 所貴乎松者 歲寒之操也 歲方寒矣 君與我 能窮不失義 益勵晚節 無羞先烈 則庶無愧於此松 宜相與勉之』

[前揭注·19]

○ 老松放

1. 퇴계의 증조부인 善山府使 李禎의 종택인 周村 慶流亭의 뜰에 있는 노송을 보통 소나무(松)가 늙은 古木으로만 짐작하고 있던 필자가 가서 그 실물을 보고는 새로운 연구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溫惠의 老松亭 老松도 소나무는 아니었고 향나무였으며, 퇴계가 曾祖父事錄에서 萬年松이라 한 松도 소나무가 아닌 향나무이다.

다음은 퇴계가 읊은 소나무는 모두 松이나 香木이나 하는 문제에 걸리고, 또 植松한 것은 어느 나무였을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松石臺, 節友社, 六友園, 같은 데 심은 나무는 노송나무일 수도 있다. 그리고 詠松한 소나무와 송림같은 고사는 일반 소나무일 것 같으나 그것을 구명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을 것 같다. 우선 慶流亭의 노송을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밝혀 두기로 한다.

2. 慶流亭의 노송나무에 대한 소개

慶流亭 뜰에 있는 노송나무는 안내표지판에 “뚝향나무”라 하였다. 표지판에 쓰인 글의 일부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나무의 나이는 약 600년으로 추정되며, 높이 2.5m, 줄기의 둘레 3.2m로 줄기의 생김새가 마치 용이 꿈틀거리며 하늘로 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어서 특이하다. 뚝향나무는 향나무의 한 변종으로서, 줄기가 곧게 서

지 않고 가지가 수평으로 퍼지는 점이 보통의 향나무와 다르다……」  
그리고 영자 표지판의 나무 이름은 *Juniperus chinensis* var로 되어 있다.

### 3. 노송과 노송나무 그리고 향나무(香木)와 똑향나무

#### (1) 한글 큰사전의 해석

㉠ 노송(老松) : 늙은 소나무(名詞)

㉡ 노송나무(老松 一) <<식>>(名詞)

솔과에 딸린 상록교목(常綠喬木), 키가 30~40m, 둘레가 5m쯤이나 됨. 껍질은 적갈색인데 길이로 찢어지기를 잘하고, 잎은 비늘쪽 모양으로 가지에 바짝 붙었음. 여름철에 가지 위에 단성(單性)의 작은 꽃이 자웅(雌雄)동주(同株)로 피고 구과(球果)가 열림. 나무결은 썩 곱고 반드러우며 열은 황백색(黃白色)인데, 내수력(耐水力)이 썩 많으며, 모든 목재 가운데 쓰이는 꽃이 많음.(편백=扁柏, 회목=檜木, *Chamaecyparis Obtusa*, Sieb, et. Zucc, ヒノキ)

㉢ 향나무(香一)<<식>>(명사)

솔과에 딸린 상록교목, 높이는 15m쯤 되는데, 나무껍질의 빛은 적갈색으로, 늙은 가지의 잎은 비늘 모양이나, 어린 가지의 잎은 바늘 모양임. 단성화(單性花)의 꽃은 사월쯤에 피. 구과(毬果)는 콩알만큼 큰 육질(肉質)인데 빛은 흑자색(黑紫色)임. 구경감으로 심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 예로부터 울릉도는 이 나무의 중요한 소산지인데, 이제는 천연 기념물로 보존되어 있음. 건축 기구, 연필대 따위의 재료로 씀(향목 香木, *Juniperus Chinensis* Linné, ヒヤクツン)

#### (2) 考察

- 우선 한글 사전의 어의 해석으로도 식물 도감을 보듯 자세하게 잘 풀이하고 있음을 알겠거니와 안내 표지는 「똑향나무」이기에 「香木」으로 이름하고 설명해 두었으나, 원래 이 나무를 노송나무에서 그 이름을 취하여 노송 또는 만년송이라 하였으므로 이름은 이 나무를 퇴계가 붙인 「萬年松」이라 하는 것이 좋겠다.
- 15m 또는 30~40m로 자란다고 하였으나 이 나무는 표지판에 2.5m라 하였다. 이번에 필자가 재었더니 2.9m였다. 껍질이 회목이든 香木이든 적갈색이라 하였는데 이 나무는 흑갈색이다. 잎은 비늘 모양이고 어린 잎이 바늘 모양이라 하였으나 이 나무의 잎은 비늘 모양도 바늘도 아니다. 그래서 향나무의 변종이라 하고 바늘이 없다하여 「똑향나무」라 이름 붙였다 한다. (1990. 5. 14. 교육 방송 천연기념물 314호 해설 : 건국대학교 교수) 꽃이 雌雄 同株로 피고 球(毬)果가 열린다 하나 이 나무는 숫나무이고 암나무가 따로 있다고 한다. 그래서 황백색의 작은 꽃은 피나 열매는 달리지 않는다. 이 나무는 위로 자라지 않아서 노송나무와 香木처럼 크지 못하고 받쳐 주며 일부러 키우지 않으면 땅바닥에 가지를 깔고

## IV

퇴계의 가학 연원과 사상의 형성에 관한 근거 자료는 이 밖에도 많다. 퇴계가 學詩하고 言志하며 많은 시를 남긴 그 뿌리와 溪上과 陶山에 精舍를 지어 교육한 위대한 업적, 治家の 법도, 婢僕의 愛恤, 賞適하는 道 등 그 실례는 허다하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元論文에 언급하였으나 제한상 줄이기로 하고 ‘퇴계의 가학과 사상형성’이 上梓되면 諸彦의 질언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상 가학과 植松慕節의 두 예를 들어 논하거니와 퇴계의 사상형성은 첫째 선대의 유업을 승계하는 효에서 출발하여 齊家를 통한 新民으로 이어졌으며 결과적으로 학문을 성취하고 門戶를 창성케 하였다.

둘째는 眞城 李氏 全門에 가학을 보급하였고 그 학풍이 禮安과 隣邑

옆으로 뺏어나간다. 濩惠 老松亭 뜰에 分叢(처음나무가 枯死한 후에 李和聖<號 : 愛澗>이 분종하고 分叢記를 씀. 이 나무는 가지를 휘묻이 <插木의 한 방법>하여 뿌리내어 옮긴다 함.) 한 노송나무가 지금도 옆으로만 자라가고 있고, 이 나무의 밑둥을 보면 몇 개의 가지를 틀어서 모아 일정한 높이까지 키운 뒤에 옆으로 가지를 뺏어나가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나뭇가지가 뺏어나가 이루고 있는 둘레는 44m쯤 된다. 직경이 14m이므로 그늘에 100명이 들어가 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바늘 잎이 없으므로 『뚝향나무』라 하고 있지만 이러한 향나무를 흔히들 『老松나무』라 한데서 『老松』이란 이름이 붙여지긴 했으나 늙은 소나무가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하겠다. 노송나무를 一名 扁柏, 檜木이라고 하므로 노송나무라 하기에다 어렵다. 變種香木 뚝향나무라 하였는데 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을 지 모르지만 慶流亭 노송나무인 뚝향나무는 퇴계가 愛松慕節한 뜻으로 일컬은 『萬年松』이라 하는 것이 가장 뜻깊으리라 생각한다. (公在善山 嫁一女 海平人 朴謹孫 臨去以衛中所養萬年松一盆 與之 謹孫乃爲之地植 而其子孫相傳謹護 盤屈奇岩至今猶存 <退溪撰 曾祖考善山公事蹟>)

이 萬年松도 “부처손”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卷柏科의 多年生 羊齒植物로서 觀賞用이나 韓醫學의 卷柏과는 다른 것 같다. 長生草(Selaginella Involvens Spring, イワヒバ)와 구별하지 않고 퇴계가 이렇게 불렀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 退溪가 詠松과 植松한 그 소나무에 대한 논술은 후일로 미루기로 한다.

은 물론 敎導의 범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셋째 퇴계 사상형성은 조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가정이라는 기본 단위집단의 철저한 가학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

넷째 퇴계의 가학 사상은 선대의 입신양명이라는 家敎 목표에서 탈피하여 聖學이라는 더 큰 목표로 창조발전하였다. 전술한 예시에서는 퇴계가 실천한 家敎를 모두 논증하지 아니하였으나 修身十訓을 통해 立志를 聖賢自期하도록 교육하였음을 밝혀 둔다.<sup>22)</sup>

---

22) 『修身十訓』

立志當以聖賢自期 不可存毫髮退托之念  
 [退溪先生文集·遺集 外篇 卷7, 葉15]